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 타자의 의미

상 종 열

서강대학교



주 제 분 류

사회복지학

주 제 어

알코올중독, 단주, 회복, 타자, 현상학적 사례연구

요 약 문

본 연구는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가 일상의 삶에서 마주치는 타자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 3명을 심층 면담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질적 주제는 내 밖에 있는 타자 구별짓기와 내 안에 있는 타자 조절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단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타자와는 거리를 두었으며, 도움이 되는 타자는 가까이하였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타자들을 자신의 생활세계에 배치하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타자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술을 요구하는 내 안의 타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상의 삶에서 긴장감과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했다. 타자 개념을 통해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의식의 지향을 추적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철학적 의미에서 타자 개념이 지닌 사회복지적인 유용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 같은 타자 개념을 통해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행위민감적 지식과 실천적 함의도 제시하였다.

접 수 일 : 2018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 2018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21일



생명연구 제49집 2018년 8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9, Aug 2018, pp. 277~327
<https://doi.org/10.17924/solc.2018.49.277>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 타자의 의미*

상종열
서강대학교

I.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중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DSM5)에서는 알코올중독이란 용어 대신에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를 사용하는데, 이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일컫는다.¹⁾ 한국에서도 알코올중독은 198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중독현황을 파악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2010년도 통계청이 작성한 사망원인 통계표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으로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http://www.snuh.org/>

인한 사망자가 4천6백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알코올치료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표-1〉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자 수 및 그 비율(2010년)²⁾

총계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기타 질환	사망 외인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화	간섬유화증/간경화증	기타 간질환	정신/행동 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4,581 (명)	3,689	2,841	164	684	766	701	76	50
100 (%)	80.53	62.02	3.58	14.93	16.72	15.3	1.66	1.09

그동안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해 재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접근하였다. 생물학이나 유전학, 정신분석학,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한 이 같은 재활 패러다임은 주로 알코올중독자로 하여금 단주방법이나 기술을 연습시켜 단주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활패러다임은 단주실패와 재발을 수차례 반복하는 중독패턴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자 스스로 회복을 도모하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단주와는 차별적 개념으로서 회복, 즉 단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전인적 회복을 강조하는 회복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회복패러다임은 당사자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사망원인통계표(2017) 재구성.

주도의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재활패러다임과는 그 접근을 달리해왔다. 십여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도 회복패러다임에 기초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있어 요구되는 영향요인³⁾이나 가족, 중독자의 자조모임인 Alcoholics Anonymous(이하; A.A.)⁴⁾ 동료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 관계요인⁵⁾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요인들이 알코올중독자의 자기조절동기를 강화시켜 회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회복패러다임에 기반 한 선행연구들 역시도 요인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가족이나 단주친목모임의 동료 등 알코올중독자의 주변인을 중

3) 유재순, 이종은, 박우영 「의명의 알코올중독자(AA) 모임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6권, 2호, 2016; 배은지, 성희자, 「알코올중독자의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재발위험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2014; 이봉재, 「지역사회 단주친목모임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출처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권, 2010; 홍정남, 이영호, 「가족탄력성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6권 2호, 2009. 등.

4) Alcoholics Anonymous는 멤버들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되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서로 간의 경험과 힘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남녀들의 공동체(Fellowship)이다. 모임의 유일한 참여조건은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다. 모임에는 가입비나 사례금이 없으며, 자신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A.A.는 어떠한 종교나 종파, 정치나 조직 혹은 학회와도 동맹을 맺지 않으며 어떤 논쟁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A.A.의 근본목적은 멤버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중독자들이 술을 끊도록 돕는 것이다. A.A. 프로그램은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임에 참석한 멤버들은 공개 스피커 모임과, 공개토의 모임, 비공개토의 모임을 통해 1단계부터 점차 단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단주와 회복을 모색한다.(<http://www.aakorea.org/index.html>) (검색일:2018.07.20.)

5) 김혜자·정혜숙,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음주와 회복 경험의 총체적 형상화」, 『사회과학연구논총』, 32권 1호, 2016; 송진아, 강경화, 「여성의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4권 3호; 김선민, 「초기 단주자들의 가족체험: 내 자리를 찾아서 가는 길」, 『스트레스연구』, 18권 2호, 2010; 김선진,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와 가족들이 경험한 가족기능 회복과정」,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3권 1호, 2009. 등.

심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알코올중독자가 단주에서 시작해서 회복으로 이르는 과정은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알코올중독자들은 단주 이후 술이라는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기조절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과 관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일상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때문에 회복 패러다임에 기반 하여 알코올중독자의 자기조절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단주 이후 술에 대한 알코올중독자의 내면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 같은 내면적인 변화와 생활세계-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단주 이후의 생활세계에서 알코올중독자가 마주치는 대상들을 타자(others)라는 철학적 개념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현대철학에서 타자는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외의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자아의 상대적인 개념⁶⁾이다. 생활세계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타자는 가족이나 반려동물처럼 생명체뿐만 아니라 술이나 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인적 회복을 도모하려는 알코올중독자에게 단주 중에 술을 갈망하는 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타자 개념을 통해 알코올중독자의 다면적인 자아를 포착할 수도 있다. 단주 이전의 삶 속에서 알코올중독자는 술이라는 타자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 대해서도 인지적인 왜곡과 변형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술의 영향에서

6)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http://philinst.snu.ac.kr/>(검색일:2018.07.20.)

벗어날 경우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알코올중독자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타자 개념은 단주 이전과 단주 이후에 알코올중독자가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대상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무엇보다도 타자 개념은 주체의 능동성에 기반 한 회복 패러다임 관점을 확장시키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에서 시작하여 들뢰즈(G. Deleuze)로 이어지는 현대 철학자들에게 타자는 삶의 주체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정립(또는 생성)해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존재들이다. ‘타자가 가능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 라는 들뢰즈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삶의 주체는 타자가 존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지난 삶을 자각하게 되며, 그 타자를 자신의 삶 속에 배치함으로서 새로운 가능세계로서 미래를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체는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화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확장 내지는 통합시키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단주 이후 타자의 배치를 통해 새로운 삶을 도모하려는 알코올중독자의 능동적 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가 생활세계에서 마주친 대상들을 타자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체험을 통해 구성한 타자의 의미를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 질문은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는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타자는 무엇이며, 이들은 이 같은 타자를 어떻게 의미화하는가?’ 이다.

II 문헌 검토

1. 알코올중독의 특성, 단주, 회복

알코올중독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수시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또한 자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탓에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 술을 안마시면 금단현상이 일어나 구토, 식은땀, 손 떨림, 안절부절 등을 경험하고 심하면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를 듣기도 한다. 반면에 술을 마시면 이 같은 증상들은 사라지게 된다. 둘째, 술에 의존해 있는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왜곡이 나타난다. 알코올중독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므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로 인해 치료 받을 때까지 훨씬 더 진행이 되어서야 치료기관을 찾게 된다.⁷⁾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술에 의존해 생활하는 동안에 알코올중독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수행해야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경제 파탄이나 가정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는 가정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측면에서 실직이나 동료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불안감은 다시 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⁸⁾ 알코올중독자 중 상당수는 노숙자가 되기도

7) 알코올중독상담센터 <http://www.alcohol114.com/> (검색일:2018.07.21.)

하는데,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 같은 노숙생활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코올중독자에게 단주란 단기적으로는 술 마시는 것을 끊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술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기 위해 술을 멀리하는 의지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단주생활을 유지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생활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술을 멀리할 경우 점차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 단주는 최종 목표가 아니다. 이영선과 김수현에 따르면 알코올로 인한 문제해결은 의학적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가족과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한다.⁹⁾ 즉, 알코올 문제는 전통적 정신보건 패러다임에 따라 단주동기를 강화시켜 단주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재발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알코올중독자가 단주를 유지하면서 생활세계에서 새롭게 일과 관계를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동기강화

한편, 선행연구들은 알코올중독자들의 단주과정에서 가족이나 단주친목모임 관계자 등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봉재는 사회적 지지

8) 알코올중독상담센터 <http://www.alcohol114.com/> (검색일:2018.07.21.)

9) 이영선, 김수현,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의지와 회복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권, 12호, 2015, 8474쪽.

의 특성을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의 경우 단주친목모임의 후원자, 동료, 치료자, 배우자의 순서인 반면에, 단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구적 지지에 있어서는 배우자, 부모, 단주친목모임 후원자, 동료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주영준은 단주친목모임의 사회적 지지 측면에 주목하는데, 그에 따르면 단주친목모임은 단주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목표지향적인 조직이기에 모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지들은 의도적인 단주 유지를 위한 도구적인 지지로 활용된다. 더 나아가 단주친목모임은 알코올중독자의 사회연결망을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된 연결망은 다시 단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¹¹⁾ 이 같은 결과는 국내외에 제시된 다른 연구결과들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¹²⁾

가족의 지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유재순, 이종은, 박우영은 가족의 지지가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치료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 참여가 알코올중독자의 회복동기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¹³⁾ 홍정남과 이영호는 알코올중독자와 가족지지관계를 제시하면서, 회복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정도나 대처전략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¹⁴⁾ Smilkstein도 단주유지 및 회복

10) 이봉재, 2010, 140쪽.

11) 주영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1008쪽.

12) 유재순, 이종은, 박우영, 2016. 307쪽; Howard. S, “*How A.A. work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herapeutic action in AA.*”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SPP, Dedham, MA. 1988.

13) 유재순, 이종은, 박우영, 2016, 299쪽.

14) 홍정남, 이영호, 2009. 17쪽.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알코올중독자가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알코올중독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¹⁵⁾ 김선진은 단주를 넘어 회복으로 이르는 과정을 알코올중독자의 관점에서 추적하면서, 가족의 지지는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⁶⁾

교육 내지는 예술치료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가 단주 및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상종열은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일환으로 인문학 강사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단주 중에 참여한 인문학프로그램에서 만난 강사들의 지지는 단주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를 강화시키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¹⁷⁾ 신경애, 곽의향, 강희숙은 사이코드라마와 같은 자기치유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로 점철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통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¹⁸⁾ 한편, 이종진, 강선경, 상종열의 연구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¹⁹⁾

15) Smilkstein G.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s."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6, No. 6, 1978.

16) 김선진, 2009, 90쪽.

17) 상종열, 「자활참여자의 인문교육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성공회대학교 박사논문』, 2013. 91-97쪽.

18) 신경애, 곽의향, 강희숙,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사이코드라마에 의한 회복 경험」,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7권 2호, 2014, 74쪽.

19) 강선경, 이종진, 상종열, 『인문학 교육을 수강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 일상 속 일과 관계가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이처럼 알코올중독자들의 단주와 회복과정을 다루는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틀 속에서 알코올중독자들이 가족, 사회복지종사자, 단주친목모임 동료, 인문학 강사 등과 맺는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 개념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알코올중독자가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타자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단주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삶의 계기적 국면에서 알코올중독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과정이자,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전인격적인 과정²⁰⁾이다. 때문에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에 우선하여 생활세계에서 알코올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타자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철학적 의미에서 타자

사전적 의미에서 타자는 ‘자기 외의 사람 또는 다른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말한다. 하지만 철학적 의미에서 타자는 자기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인 일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철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일자와 타자와의 논리적 관계나 형이상학적 관계를 문제삼아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타자 개념이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철학적 사유로서 현상학이 등장한 이후였다. 후설(E. Husserl)은 삶의 주체가 지닌 외부로의 ‘지향성’ 개념을 토대로 하는 현상학을 제시하면서 주체인 일자가

104-105쪽.

20) 이영선, 김수현, 2015, 8474쪽.

외부 대상인 타자가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공유하는 어떤 세계를 설정하였다. 이 같은 현상학적 인식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철학에서 타자는 점차 주체와 상호작용 속에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실존주의자이자 현상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삶의 주체인 인간은 생활세계에서 다양한 타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정립해가는 존재로 인식하였다.²¹⁾ 사르트르(J. P. Sartre)는 삶의 주체인 인간이 타자와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자유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주체-타자의 관계는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부버(M. Buber)는 주체-타자 관계를 상호인격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는 자기중심적인 ‘나-그것(I-it)’이라는 태도보다는 주체와 타자간 상호인격적인 관계로서 ‘나와 너(I-Thou)’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레비나스(E. Levinas)는 부버의 이 같은 나와 너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레비나스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덜 가지거나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체와 타자 간에 상호인격적인 나와 너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자를 전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그 속에서 ‘다름’이 허용될 때 부버가 제시한 나-너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한편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는 주체의 역사성과 고유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는 각자의 삶 속에 형성된 역사적 고유성 때문에 주체들은 서로가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타자

21)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145-148쪽.

22) 정정호, 「사르트르, 부버, 레비나스의 타자론: 주변부 타자 문학론을 위한 시론」,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1. 8-14쪽.

와의 교류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타자와의 만남은 주체로 하여금 기존의 역사적 주름을 파괴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생산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²³⁾

실존주의 철학자나 현상학자들이 이처럼 주체로서 일자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제시한 반면에 데리다(J. Derrida)나 들뢰즈처럼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 하여 사유한 철학자들은 삶의 주체들이 지닌 차이에 주목하는 한편, 삶의 주체에게 있어 타자가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들뢰즈는 ‘상대적 타자가 나의 유한성을 보완한다. 타자가 가능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타자는 삶의 주체가 새롭게 자신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타자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생활세계 속에 배치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²⁴⁾

한편,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서 타자는 주체의 내면에도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캉(J. Lacan)의 대타자(Big Other) 개념에 따르면 타자는 외부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 주체의 내면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대타자는 원래의 삶의 주체가 상징화된 주체를 볼 때 생기는 타자인식이다.²⁵⁾ 결국 자기가 자기의 타자가 되는

23) 강신주, 『철학 VS 철학』, 그린비, 2010. 234-249쪽.

24) 강신주, 2010, 391-393쪽.

25) 정신분석학에서 대타자는 원래의 자기를 거세하여 무의식 속에 숨겨두고, 세상에 등록하여 상징기호로 존재하는 타자다. 대타자는 대체로 언어의 기표와 기의를 얻은 다음 상징계에 위치하는데 그것은 상징이 작동되는 공간이다. 유아는 상상계에 속하면서 자기를 언어상징에 등록하고 기표를 얻는다. 하지만 어린 주체는 자신의 욕망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아버지의 이름인 법과 제도에 순응하는 주체가 된다. 이와 동시에 성적욕망을 무의식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자기를 거세하고 세상 즉, 아버지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다.

<http://cafe.daum.net/jjsongbuk> (검색일; 2018. 7.21)

셈인데 이 같은 주체의 분열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을 낮설게 느껴지게 만들기도 한다.

정리해보면 20세기 이후 철학적 의미에서 타자는 삶의 주체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삶의 주체인 인간은 타자를 자신의 삶 속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내지는 생성)해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단주 이전에 알코올중독자들이 술이라는 타자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배치한 결과가 알코올중독의 삶이었다면, 술이 아닌 다른 타자들을 새롭게 배치하면서 자신의 가능세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단주와 회복과정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고자 했으며²⁶⁾ 선정기준은 첫째, 알코올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거나, 건강을 잃었던 적이 있을 것, 둘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회복지(내지는 의료)기관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을 것, 셋째, 교육을 통해 자신이 알코올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적인 자기조절을 시도하고 있을 것, 넷째, 단주 및 회복과정에서 다시 사회로 나와 일을 하면서 새롭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것 등

26) 세평적 사례선택은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이다.

이었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섭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 생활시설이나 알코올치료센터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들이 적합한 참여자라고 추천해준 후보자 중에서 3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1

63세의 기혼 남성이다. 경상도 매화시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으며, 이후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고등학교 시절인 10대부터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으며, 30대 중반부터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자녀 저금통을 깨서 술을 먹을 정도로 알코올에 의존하였다. 40대 중반에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이후 혼자 살면서 알코올 치료병원과 노숙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다. 40대 후반에 알코올치료센터와 생활공동체를 통해 단주를 시작하였으며,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부터는 A.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0대 초반부터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알코올중독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50대 후반에 참여자는 가족들과 재결합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아내 및 자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터뷰 시점에 참여자는 지방 소재 알코올중독자치료병원에서 중독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단주를 시작한 지 약 15년 되었으며 단주 이후 아직 재발한 적은 없다.

2) 참여자 2

61세의 미혼 남성이다. 경상도 국화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으며, 이후 십여 개의 직종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였다. 고등학교 시절인 10대 후반부터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으며, 사업에 실패한 시기인 40대에는 부모나 형제자매들과도 단절된 채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40대 후반부터는 노숙자로 생활하였으며, 50대 초반부터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 치료를 시작하였다. 병원 치료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치료공동체에서 단주를 유지하였으나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재발하였다.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단주와 재발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인터뷰 시점에 참여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혼자 살아가고 있으며,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3) 참여자 3

63세의 기혼 남성이다. 강원도 목련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으며, 이후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었다. 30-40대에는 직장생활과 사업을 통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30대 초반부터 술로 인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40대에는 사회활동을 모두 접고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인과 자녀도 각자 떨어져 살게 되었다. 이혼 이후 참여자는 50대 후반까지 고향 인근 도시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 시기에도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알코올치료병원에 입소하면서 단주를 시작하였다. 재활치료 이후 약 3년 동안 단주친목모임에 참여하면서 단주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단주 후에는 다시 자

녀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시점에 참여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2. 자료 수집

자료는 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인터뷰(phenomenological interview)²⁷⁾ 방식을 채택하였다. 심층면담은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1회 인터뷰 시간은 90분-120분이었으며, 총 6회(합산시간: 약 600분)에 걸쳐 포화(Saturated)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주로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참여자의 집 주변 카페에서도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 진행과정에는 주로 연구 참여자가 구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심층면담이 끝난 후는 반드시 당일에 기록을 마쳐 인터뷰 당시 연구자가 민감하게 포착했던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1차 인터뷰 이후 전사한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진술내용에 의문이 생길 경우 2차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단순한 의문사항들은

27) 현상학적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체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참여자의 생생한 체험을 명확하게 하고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SNS나 전화로 확인하였다. 심층면담 이외에 채택한 연구 자료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종사자, 단주친목모임 동료와 주고받은 e-mail 서신이나 연구 참여자가 직접 작성해 놓은 메모 등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사례연구(phenomenological case stud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사례연구란 개인의 주관적인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의 본질적인 구조를 규명하려는 정향을 지닌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하나(또는 여러 개)의 사례를 맥락 속에 위치시켜 놓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구자의 관심 분야를 심층 분석하는 사례연구방법을 결합한 것이다.²⁸⁾ 이 같은 현상학적 사례연구를 사용할 경우 알코올 중독자가 체험을 통해 구성하는 타자의 의미를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인 체험사례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과,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공통으로 체험하는 타자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4.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신빙성,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은 설정하고자 했다. 첫째, 신빙성(truth value)이다. 신빙

28) 이근무, 김진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권, 2호, 2010. 113쪽.

성이란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이나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전사한 후 연구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 분석 이후에는 참여자 1명을 통해 분석 결과를 확인시켰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이다. 적용성이란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경우 사례연구라는 방식을 채택하였기에 이 점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일관성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 간에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 실천 현장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검증받았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이다. 중립성은 연구 진행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인식론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에서 요구하는 에포케(epoche; 판단을 중지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진행과정 내내 면담자료와 문헌내용, 자아인식 등을 메모하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5.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연구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강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연구승인을 획득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이전에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참여자의 권리 등을 알려주었으며, 인터뷰 도중이나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본인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단주 이전의 삶 속의 타자

1) 삶의 중심에 배치한 타자: 술

알코올치료병원에 입소하고 단주를 시작하기 전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중요하게 배치되는 타자는 술이다. 참여자 1, 2, 3은 청소년기부터 술을 가까이 하고 지냈으며, 술로 인한 소소한 문제들을 드러내었다. 20-30대로 접어들면서 술에 대한 의존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술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그야말로 ‘술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누가) 와 보면 온 방에 똥칠이고, 술병이고. 너무 막 술 먹고 그래가 있는 거, 우리 누나는 큰 누나, 형수들이 이불을 몇 십 채 사다가 버리고. 이불을 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뭉쳐다 버리고, 새 거 사다놓고. 또 며칠 있다 오면 또 그래서. (참여자 1)
- 알코올중독자들은 무계획이라 그리고 술을 먹어갖고 편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것들은 머리에서 짝 날아가고 없어요. 그냥 없고 한잔만 한

병만 오로지 거기 꽃혀있는 거라 그러고 나갔고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오로지 술만 찾는 거야. (참여자 2)

- 한 병 따면 딱 넘어가서 꼬르륵 넘어가고, 내리면 확 쏟아지는 거야. 집어넣으면 쏟아지고, 집어넣으면 쏟아지고. 그렇게 보면 이만한 쓰레기통 큰 거 높은 거를 갖다 놔서 거기다 토하고. 그냥 뭐 말도 못했어. 그때는 똥도 그냥 막 싸고. 오줌도 싸고. 이불에다가. 자빠져서 대가리 터져가지고 대가리는 끓아가지고. 베개에 피가 범벅이 되고. (참여자 3)

2) 삶의 주변으로 밀려난 타자: 가족

술이 참여자의 삶의 중심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이들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이 시기에 가족들은 눈을 맞추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가족은 자신의 술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자 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대상일 뿐이다.

- 우리 딸내미가 돼지저금통에 큰아빠네 잤다 오고 나면 용돈 얻으면 그거까지 훔쳐다 술을 사먹었으니까. 그걸 가져가는, 딸내미가 내 가랭이를 붙들고 못 가져가게. 붙들고 늘어지는 걸 차버리고 나가서 그걸 갖고 갔었어요. 술 사먹으러.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런 게 인간이냐” 그런 소리를 나한테 막 했었어요. (참여자1)
- “엄마, 천 원만 줘.” 통사정하고 붙잡고 그러면 “이번 한 병만 먹고 먹지 마.”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한 병 사다주마, 나오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 술 사러 간다고 안

사오고 도망갈까 봐 살살 쫓아가요.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참여자3)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가족들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부에 배치해놓은 술을 빼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참여자의 삶에서 술을 제거하려는 가족들을 불신하고 원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참여자를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두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 해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참여자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술을 너무 먹으니까 거기 가면 정신 차릴까 싶어 (가족들이 알코올치료병원에) 보냈는데 내 자신이 알코올중독자라는 걸 안 받아들이고 나가기만 때려죽인다 그러고. 이빨만 부득부득 갈고 (참여자2)
- 술만 퍼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향이 목련이라 큰형네 집으로 왔지. 뭐 죽이지는 못하고. 큰형이. 큰형이 굉장히 잘 하시거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는 분인데 날 보더니 “야, 나가서 차라리 목매 뒤져라.” 나보고 딱. “가라.” 거기에 또 화가 나는 거야. (참여자3)
- 우리 큰 애가 판사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내가 아빠가 그렇게 살고, 엄마가 그렇게 사는데 집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신문 배달소에 가 봐도 나이 어리다고 안 시켜주고. 주유소에 알바를 해봐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엄마, 아빠가 헤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겠다고. …(중략)… ‘너 이놈의

새끼야. 누가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누가 시키는 누가 시켜. 그러면서 너 이 새끼야, 족보를 파낸다.... 이미 이혼돼서 헤어져서 잘려나가는 주제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참여자1)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후에도 참여자들은 여전히 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이 시기에 참여자들의 주변에는 술친구인 노숙자나,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나, 자신에게 술사먹을 돈을 주는 이웃이 주변인으로 남기도 한다.

- 서울역에 있는 같은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먹고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인이 그냥. 그래서 인자 집도 그냥 길거리 누웠다가 (참여자1)
- 나 때문에 어머니가 여기다 방을 얻고 오신 거야. 어머니가 이제 큰집에 계셨는데 피해서 나온 거야. 어머니가 여기 와서 구멍만한 방에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오셨어. (참여자3)
- 한 겨울에 슬리퍼 신고 슈퍼 불 켜진 데면 슈퍼서부터 술집서부터 가게, 교회, 뭐 일반 집 할 것 없이 무조건 돈 천 원만 달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한 번은 거의 다 줬던 것 같아. 그럼 그 돈 받아서 술 사먹고. (참여자3)

2. 단주 이후의 삶 속의 타자

1) 단주에 도움이 되는 타자들

알코올 치료병원에 입소하기 직전에 이르면 대다수의 알코올중독자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특히 노숙생활을 오래한 경우에는 취약한 거주환경에 의한 질환으로 시달리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참여자는 가장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며,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타자에게 의존하고자 한다.

- 한강변에서 보면요 운봉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봄에 노랗게 개나리꽃이 핍니다. 술 마실 때 그 개나리 꽃피는 걸 보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고 창가를 내려다보는데 (병원이) 찢레동이니까 아차산에 단풍이 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는 그 중간이 아무 기억이 안나. ...(중략)... 그러면서 어느 날 창을 내다보는데 내가 이러다가 끝나는 것 같다! 하는 위기의식이 이런 것들이 들면서. (참여자1)
- 내 자신은 술을 누가 끊게만 해 준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계속 들면서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더라구요, 그게요. 그런 가운데 저, 구세군이라는 데 한번 갔었어요. (참여자2)
- 매일 어머니가 한 자루씩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들지 못해, 빈 병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내 입으로 그때서부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참여자3)

(1) 가족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동안 삶의 중심에 배치했던 술을 떼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먼저 찾게 되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가족은 한 때 참여자들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던

사람들이다.

- 나하고 세 살 차이(형)가. 그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어쩌면 좋겠냐?’ 하니까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정신과 병원이니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서 저를 입원시킨 게. (참여자1)
-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동사무소에서 한 번 찾아왔더라고요. (참여자3)

(2)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알코올중독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참여자들이 의존하는 타자들이다. 이들은 참여자들이 병원과 생활공동체에 거주하면서 단주를 유지하는 초기 과정에 개입하여 큰 도움을 준다.

- 물푸레나무(생활공동체)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들 천사들이다. 아까 제가 말한 민들레 그분은 내가 첫 사례거든요. ...(중략)... 그 양반이 내 담당했던 분이야. 그 양반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양반 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야. (참여자1)
- 나를 잡아준 사람은 (알코올치료)센터의 동백꽃 선생이... 그 사람도 동생을 알코올로 잃었어. 여동생을 잃고 그래서 알코올로 인해서 상록수에서 교육을 받고 2년인가 인턴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직원이 돼서 지금 직원으로 있다가 우울증 같은 게 와서 잠시 쉬다가 지금은

나오는데. 동백꽃 선생의 영향을 받았어요. 뭔가 모르
게... (참여자2)

사회복지종사자들도 단주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타자가 된다. 알코올중독자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해야 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종사자들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라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넘어 상호인격적인 관계로 다가설 경우 참여자가 느끼는 고마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 나 도와주시는 시청 복지과 선생님한테 딱 1년에 한 번 씩. 전화도 안 해요. 연락 없이 내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선생님, 저 왔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단주 생활 잘 하시면서 그 전에는 왜 안 됐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웃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는데. (참여자3)

(3) 인문학 강사

알코올중독자들은 생활공동체에 있는 동안 인문학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 만나는 인문학 강사들도 중요한 타자가 된다. 대학교수 내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문학 강사들은 참여자들에게 낯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인문학 강사들은 자신이 지닌 지식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특정한 이론이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기반 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알코올중독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치열한 삶에 부딪치죠. 진짜 피 터지는 치열한 삶. 술 한 잔 먹으면 혹자들은 교수님들에게 ‘씨발 놈’ 이렇게 한탄 말이에요. 대놓고. 나중에 술 깨면 ‘교수님!!’ 하고. “니가 교수냐!”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한탄 말이에요. 그래 피 터지고 주고받는 인문학이니까 저는 정감이 가는 거예요. (참여자1)
- 욕심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사시는 (강사) 분들 그런 분 볼 때. 그런 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 돈 몇 푼 있으면 쓰고 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올바른 삶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 얘깁니다. (참여자2)

(4) 단주친목모임 동료

병원이나 생활공동체에서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마주치는 타자 중에는 같은 문제를 지닌 동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단주친목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는 과정에 참여자들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기도 한다.

- AA란데 들어가 보니까 엉뚱한 데예요. 종교단체도 아니고 알코올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알코올중독자 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칭, 뭐 여기는 사이비 종교단체인가. 그래가지고 가서 들어보니까 구구 절절히 이 양반들이 어찌면 내 뒷조사를 댕겼나 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AA 모임에. 그러면서 어느 날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여자1)
- 그 사람들 경험담 얘기하는 게 내 얘기야, 내 얘기. 내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내 얘기 못

하는데. 대신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주니까 후련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털어놔야 되겠구나. 쫓아다니면서 남의 말 듣고 남 말 하는 거 볼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가서 내 경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 풀어놓고. (참여자3)

- “내 본 모습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주위에서 돌아보는 (단주친목모임)동료들이 보는 눈이 내 진실한 모습이라는 얘기에요. 그 말은 절대적으로 내가 좀 신뢰하고 싶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걸음을 걷는데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동료들이 볼 땐 팔자걸음으로 걷고 있으면 나는 팔자걸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참여자2)

2) 단주에 장애가 되는 타자들

(1) 돈

연구 참여자들이 병원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도모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타자는 돈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코올중독자들도 재활치료 이후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알코올중독자로 하여금 다시 술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는 재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 해바라기라고 반도체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어찌다가요. 그런데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했었는데 보수도 한 160 정도 되고. 그나마 내 나이에 비해 갖고는 괜찮은 직장이었는

데... 임대에서 인제 혼자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을 적에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일종의 교만이죠. 하늘도 땅도 모르게 반병. 그럼 반병이 한 병이 되고 두병이 되고 세병이 되고. (참여자2)

(2) 직장동료나 고객

참여자의 단주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타자는 직장동료이다. 신체적으로 내지는 심리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반인들처럼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참여자에게 직장동료나 고객들이 보이는 자세와 태도는 참여자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 팀장이 입원시키고 모시고 나와서 씻기고 하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런데 “샘 그냥 마치고 들어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는 게 “저놈 새끼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 안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올라와. 이게 엄청나게 느껴요. (참여자1)
- 주차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그런가 하나면, 일종의 갑질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자2)
- 인력사무소를 나갔어요. 3일 나갔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건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안 해본 거라. 거기 도 막 욕하지. 못 한다고. “그러려면, 에이” 인격 모독을 하니까. 다른 건 좋은데. “그따위로 일을 하려면 가라.” 남의 돈 거저먹으러 왔느니 별 소리 다 하니까. (참여자3)

(2) 가족

가족도 스트레스 요인이다. 회복 이전에 주변부로 밀려났던 가족들은 참여자들과 관계를 복원한 이후에 지난날의 크고 작은 상처를 드러내게 된다. 지난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드러내는 상처들은 참여자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 컵이 탁 떨어져서 깨졌어요. 기술 있는 사람들은 조각 주워서 붙여놔서. 그런데 그 속에서 붙여놓은 것뿐이지 양금은 있잖아요. 영원히 그거는 있어요. 딱 결합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순간순간 탁 아버지가 뭐 그런 소리를 하지는 않는데...우리는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약간 말 한마디 속에서 나오는 (참여자1)
- 내 바람이지만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집사람이) 챙겨주지 않으면 또 원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외롭고 힘들다는 걸 참고, 참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고름이 계속 끓다가 언젠간 터진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어요. 터지면 안 되는데. (참여자3)

3. 타자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삶 모색하기

나는 길을 걸어갑니다. /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 나는 그 구멍에 빠집니다. / 길을 잃고 맴니다... 무기력한 나 / 내 잘못은 아닙니다. / 밖으로 나오는 길을 찾는데 영원처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 나는 못 본 척 합니다. / 다시 그 구멍에 빠집니다. / 깊은 곳에 다시 빠져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닙니다. / 밖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긴긴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 나는 그 구멍을 봅니다. / 나는 다시 그 구멍에 빠집니다... 습관이 되어서... 하지만 / 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내 잘못입니다. / 나는 얼른 빠져나옵니다.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 나는 그 길을 돌아갑니다.

나는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5개의 짧은 장으로 된 자서전
(Autobiography in Five Short Chapters)

위의 작품은 가수이자 작가로 활동했던 넬슨(P. Nelson)의 자서전적인 시²⁹⁾이다. 이 시는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친목모임에서도 자주 인용되는데, 그 이유는 한 인간이 삶의 여정에서 겪는 고통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식의 지향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발로부터 빠져나와 회복으로 나가려는 것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주인공처럼 단주의 길로 들어선 알

29) Portia Nelson, *There's a Hole in My Sidewalk: The Romance of Self-Discovery*, Popular Library, 1977.

코울중독자들이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오랜 기간 단주했어도 술을 입에 대는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단주이기 때문이다. 설사 단주를 유지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단계가 모두 같을 수 없다.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살얼음판을 걸듯이 해야 하는 것이 단주이기 때문에, 단주자로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 술을 끊고 나서 1, 2, 3년 동안 거의 생 단주라고 봐야 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1)
- 술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힘이 돌아온 게 2년 넘어서부터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도 불안하지만 그때는 더 했고. 처음에는 여기서(집에서) 뱀다 뛰어요. 왜 뛰는 지도 모르고. 그게 술 사러 가는 거야. (그렇지만 가게로 가지 않기 위해) 저 앞에 전봇대 붙잡고. 몇 번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튀어나가. 한 병만 먹고 말아야지. 그럼 세상만사가 확 될 것 같으니까. 좋아질 것 같으니까. (참여자3)

실제로 연구 참여자의 단주과정이나 단계는 사뭇 달랐다. 단주 14년 차인 참여자 1은 마지막 단계인 ‘다른 길’로 접어든 상태였다. 그에게는 알코올중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생활세계의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존재했지만 참여자 1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조절하고 있었다. 반면에 참여자 2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통해 받는 스트레

스를 잘 조절하지 못했으며, 재발도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위의 시의 3단계에 있던 화자처럼 참여자 2는 재발이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며 그 신호도 감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뷰 시점에서 참여자 2는 4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단주 기간이 3년이 된 참여자 3은 4단계로 진입한 상태였다. 그는 단주친목모임인 A.A.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는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활력이 되고 있었다. 단주 이후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다. 대신 수급비를 바탕으로 하는 최소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 이십대 때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자격증인데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저 가치관에 봐서는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정신과 중독을 가지고 어디 가서 프로그램 한 시간을 하더라도 일반 사회복지사자격증보다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이면서 중독전문가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좀 더... (참여자1)
-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는 내 몸이 조금은 알겠어요, 이제. 좀 답답하거나 그러면 ‘왜 답답하지?’ 그러면 빨리 멈추고 답답한 그 순간에 ‘왜 답답하지?’ 자꾸 시간마다 되짚어 봐요. 왜 그랬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활달하게 움직일 때 나빠질 때부터 더듬어 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자꾸 알아가는 중이죠, 이제. (참여자2)

-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돌아도 안 받던 거를. 예전에 좋아했던 거를 버리고. 그 생활(단주친목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 의식조차 없던 거를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거라서. 삶을. 정말 꿈에서도 생각 안 했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서. 가끔 가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해요. “나 미친 것 같아. 나 지금 미쳤어.” (참여자3)

이 같은 차이 속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의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알코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으며, 이 같은 의식의 지향은 타자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또한 타자와의 마주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이들을 의미화한 본질적 주제는 ‘내 밖의 타자 구별짓기’와 ‘내 안의 타자 조절하기’로 드러났다.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내 밖의 타자 구별짓기	단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타자와 거리두기
	단주에 도움이 되는 타자와 가까이하기
내 안의 타자 조절하기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기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1) 내 밖의 타자 구별짓기

(1) 단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타자와 거리두기

단주 유지를 위해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타자를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는 술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단주 유지를 위해 참여자들은 술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다.

- 옛날 나와바리가 영등포니까 둘러보니까 아는 애들은 한 서너 명이 있는데 이쪽이 한 무더기, 이쪽이 한 무더기 막 건져서 소주 놓고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술이나. 그 사이에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참여자2)
- (병원알코올치료)센터를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센터는 말이 많아.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이) 흠을 자꾸 잡고. 단주가 약하니까 자꾸 남을 되썰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라 부딪치면 싸워야 하잖아요. 싸우면 화가 나야하고, 화가 되면 나만 손해가 되니까. 일단 피하는 거죠. 도피.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참여자3)

돈과 관련된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자 했다. 단주 이후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더라도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했다. 그런 기준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경우엔 돈 버는 일을 포기하였으며, 줄어든 수입은 생활의 규모를 줄이면서 해결하고자 했다.

- 사회에 나가니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봐서는 눈에 보이는 데, 안 봐야 되는. 못 본 척 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옛날에는 술 먹고 그걸 보고 들이받고 싸우고 이래 했던 것들이 참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면 또. 어쨌면 비겁한 삶일 수 있는데, 그 비겁한 삶도 내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 게 인생, 삶인가보다. (참여자1)

- 지금도 뭐 조치원 같은 데서 내려오게 되면 140준다, 150준다 내려와 있으라 그러는데 거기 내려가 갖고 또 얼마나 시달릴 건데. 뭐 매출이 적게 올랐으니까 돈 나가는 것도 힘들다. 뭐 세금 털어야 된다. 뭐 관리세 나가야된다 어찌고 뭐 이상한 소리들 듣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생활이 또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돈 내가 단지 몇 십 만원 더 받는다 그래갖고 그건 아니더라 얘기에요. (참여자2)
- 이거(수급비) 가지고 못 산다고 난리치는데 그만큼 돈 나오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는 건 난 새빨간 거짓말. 남 쳐먹는 거 다 쳐먹고, 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지가 경제활동을 하든, 어디 가서 사기를 치든. 등짐을 지든 별지 않으면. (그런데 난)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참여자3)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일반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자 했다. 이들에게 일반인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시켜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상처를 입곤 하였다. 이런 경험은 일반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게 만들었다.

-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고. 어떤 면은 냉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분들은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참여자1)
- 일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게 뭔데?’ 멀쩡한 사람이 왜?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돼.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들이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견제를 하지.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노숙자에다가 저 뭐야, 수급 받고 있고. 지금 그런 덩어리를 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탁 건드리게 되면 상처받을 건 뻔해요. (참여자2)

(2) 단주에 도움이 되는 타자와 가까이 하기

반면에 단주에 도움이 되는 타자들은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다. 그 대상 중에는 가족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병원치료사, 단주친목모임 동료 등도 연구 참여자들이 가까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단주친목모임의 동료는 이들이 단주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 너무 떨어져서 (지내서) 잔잔한 것이 없다는 게. 제 생각 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적기는 한데. 또 환갑이라고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용돈하고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걸 보면 “인정은 하고 있기는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참여자1)
- 아이가 31살 됐는데 지금도 아이가 아빠하고 목욕하고 싶다고 와요. 같이 목욕하고. 등 밀고. 지금도 내가 불안해지면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참여자3)
- 모란꽃 선생이라고 백일몽대학교 교수더만요. 나이를 몇 살 됐는지 몰라. (그 분하고) 친구처럼 뭐.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은 귀에 많이 들어와. 교환을 많이 해. 눈빛교환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새 모이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 그런 상황이고. (알코올치료센터) 원장

님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참여자2)

- 자기들(AA 동료들)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불도 없이 홑이불 하나 하고 살았는데 침대도 사다 놔주고. TV도 사다 놔주고. 돈 60만원 받아서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도 이만한 거 새 거는 아니고 중고도 사다 놔주시고. 뭐라도 있으면 자꾸 넣어 놓고. 꺼내 먹어야지 없는 사람이 사다 먹지는 못하니까. 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 멤버들이 없으면 AA 멤버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제. 정말요. (참여자3)

단순히 거리감을 좁히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확장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의 지향도 나타났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는 단절되었던 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며, 단목친목모임에서 만난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단주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 경조사가 있어. 제사가 있다든지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들 간끼리 돈을 얼마씩 각출해서 뭘 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하면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사실 그랬던 저였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여자1)
- (처갓집에) 매년 일 년에 한 번씩 가요. (여전히 사위로 대우해 주세요?) 그럼요. 오는 데 어떡할 거야. “아우, 저놈의 새끼, 술만 안 처먹으면 제일 예쁜 놈이.” 우리

장모님 그러시지. (참여자3)

- (단주친목모임) 리더자로서 같이 가자. 끌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싶은 거죠. 모든 걸 떠나서 중독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진짜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스스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참여자1)
-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단주친목모임 동료)에게 얘기를 했을 적에 반응이 바로바로 올 때는 뿌듯하거나 그런 건 안 느끼겠지만 거기 있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느끼긴 느끼죠. (참여자2)

2) 내 안에 있는 타자 조절하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 당신의 쉼 곳 없네. / 내 속엔
헛된 바램들도 / 당신의 편할 곳 없네. /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 당신의 쉼 자리를 뺏고 /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 쉼 곳을 찾아 / 지
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 바람만 불
면 외롭고 또 괴로워 /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 당신의 쉼 곳 없네.

-가시나무새-

위의 노래는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이다. 노랫말에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면적인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힘들고 지친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다면적인 자신으로 인해 메말라버린 마음과 그로 인해 생기는 경계선이 화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 노랫말 속에 작동되는 주인공의 의식은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의 의식과 닮아 있다. 특히, 일 상에서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술을 원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설 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된다.

- 냉장고 열어 보니까 먹다 남은 술이 냉장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거 탁 쳐다보면서 이게 참 오감이 있잖아요. 이 좋은 걸 나는 못 먹는다. 여러 가지 막 이런 것. (참여자1)
-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 뽕 소리만 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러다 또 술병도 있었어요. ‘이러다 저리 가는 거 아냐?’ 싶은 게, 덜컥 그냥 이걸 아니다 싶은 게 ‘빨리 잠을 자자.’ 이 생각이 별컹 들더라고요. (참여자2)
- 방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먹고 물 한 병 사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물병이 아니고 벌써 술병이 들려있는 거야. (참여자3)

(1)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기

이처럼 자신의 내면에 남아서 여전히 술을 갈망하는 또 다른 나를 통제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같은 모습은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며, 이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짐이기도 했다.

- 약간의 강박증이 갖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

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있는 사고방식대로 같이 살면 나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갖고 있거든요. (참여자1)

-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요 그래야지 술 또 먹었다 그러면 더 힘들어져 이제는 나이 문제도 있고 회복 문제도 있고 더 힘들어져요 그걸 항시 머리에 얹고 살아야 되요 이제는 (참여자2)
- 나같이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히 그 생각을 놓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순간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가 왜 술을 먹었는지, 왜 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고 나서 큰일 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각심이 없는 삶은 실패할 수 있지 않나. (참여자3)

(2)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더라도 술을 갈망하는 내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절하고자 했다.

- (가족들과는) 묵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됐다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냐 그러냐면, 서운하면 옥탑 위에 올라가든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웃고. ‘아이~씨’ 한 번 하고. 그래 하고 가요. (참여자1)
- 제가 병원을 자주 가니까 스틸록스라고 수면유도제가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화가 나거나 뭐 했을 때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한잠 자고 다시 명상을 하든가 생각하고 하라는 이런 게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고 나발이고 아니고 우선 한잠 자자. (참여자2)

- TV에 술 먹고 그런 장면 나오면 안 봐요. 술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내 침이 먼저 넘어가니까. 최대한 주의를 하는 거죠. (참여자3)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대상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대철학에서 제시하는 타자 개념을 사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가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타자는 무엇이며, 단주 과정에서 체험된 이 같은 타자를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하는 현상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외부의 타자들을 단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타자와 도움이 되는 타자로 의미화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 타자는 거리를 두었고 도움이 되는 타자는 가까이하고자 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타자는 술이나 술친구들, 직장동료, 일반인 등이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이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들로서 단주 유지에 필요한 평정심을 흔들어대는 타자였다. 반면에 연구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사람들은 단주의지를 강화시키는 타자였다. 가족, 사회복지사, 의료진, 인문학강사, 단주친목모임 동료 중에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타자들을 생활의 중심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삶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했다.

참여자의 내면에도 ‘술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나’라는 타자가 존재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타자를 조절하고자 했다. 이들은 내면의 타자에 의해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의식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내면의 타자에 대해 긴장감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식과 조절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참여자 2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 재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주중인 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 내면의 타자를 조절하는 것이 단주 유지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 존재하는 이 같은 타자와의 마주침 속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단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참여자들의 희구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참여자들의 절박함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테두리 내에 존재하는 타자들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도모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단주중인 알코올중독자가 의미화한 타자라는 개념을 통해 단주중인 알코올중독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 체계 속의 조력자로서의 타자가 아닌 알코올

중독자가 생활세계에서 구성하는 타자를 설정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중독자들이 이들 타자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회복 패러다임이 지닌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알코올중독을 다루는 실천현장에 필요한 행위 민감적 지식(action sensitive knowledge)³⁰⁾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례를 통해 단주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은 외부와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와 조응하는 방식과 조절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차이가 회복과 재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실존적 자기조절³¹⁾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연구 참여자의 사례 내 내지는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알코올중독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비롯한 현장 실천가들이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중 하나는 철학적 의미로서 타자 개념을 통해 자아를 탐구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의 맥락을 지니며 그 속에서 알코올과 같은 타자와 마주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다가서는 타자

30) 반 매넨은 체험연구는 인간과학 연구방법으로 해당 분야종사자로 하여금 좀 더 사려 깊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상황에 맞게 재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도록 돕는 행위 민감적 지식을 제공하는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 매넨 저, 신경림 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방법론』, 현문사, 2000. p. 51.

31) 상종열과 차명희는 실존적 자기이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중독자의 경우라도 특정 국면에 있어서는 자기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상종열·차명희, 「실존적 자기조절 측면에서 본 여성 노인도박자의 생애」, 『한국노년학회지』, 46권, 2호, 2018.

를 통해 자아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를 기획할 수도 있다. 이처럼 주체의 능동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타자’ 개념은 알코올중독 연구에 있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알코올중독 분야 종사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타자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독자들은 술만 중독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사회복지종사자)들은 중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독자인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냐?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는 사실 별로 못 봤어요.” 라고 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알코올중독 실천현장에서 부버나 레비나스가 제시한 자아-타자 관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와의 개입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얼마나 윤리적인 태도와 자세로 알코올중독자와 마주치고 있는지 곱씹어볼 대목이다.

참고문헌

- 강신주, 『철학 VS 철학』, 그린비, 2010.
- 강선경, 이종진, 상종열, 『인문학 교육을 수강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 일상 속 일과 관계가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 김선민, 「초기 단주자들의 가족체험 : 내 자리를 찾아서 가는 길」, 『스트레스研究』, 18권 2호, 2010.
- 김선진, 「단주중인 알코올중독자와 가족들이 경험한 가족기능 회복과정」,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3권 1호, 2009.
- 김혜자, 정혜숙,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음주와 회복 경험의 총체적 형상화」, 『사회과학연구논총』, 32권 1호, 2016.
-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 배은지, 성희자, 「알코올중독자의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재발위험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2014.
- 상종열, 「자활참여자의 인문교육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성공회대학교 박사논문』, 2013.
- 송진아, 강경화, 「여성의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4권 3호, 2013.

신경애, 곽의향, 강희숙,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사이코 드라마에 의한 회복 경험」,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7권 2호, 2014.

유재순, 이종은, 박우영, 「익명의 알코올중독자(AA) 모임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6권, 2호, 2016.

이근무, 김진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권, 2호, 2010.

이봉재, 「지역사회 단주친목모임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출처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권, 2010.

정정호, 「사르트르, 부버, 레비나스의 타자론: 주변부 타자문학론을 위한 시론」,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1.

주영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홍정남, 이영호, 「가족탄력성이 알콜중독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6권 2호, 2009.

반 매넨 저, 신경림 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현문사, 2000.

Howard. S, *How A.A. work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herapeutic action in AA.*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SPP, Dedham, MA. 1988.

Portia Nelson, *There's a Hole in My Sidewalk: The Romance of Self-Discovery*, Popular Library, 1977.

Smilkstein G.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s.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6, No. 6, 1978.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http://philinst.snu.ac.kr/>

알코올중독상담센터 <http://www.alcohol114.com/>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A.A.) <http://www.aakorea.org/index.html>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earch/search.do>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about the meaning of Others that revealed from the Alcoholic' lived experience

Sang Jong Yeol
(Sogang Univ.)

This study explored the essential structure and meaning of Others (derived from Philosophy) that revealed from the Alcoholic' lived experience. For this, Three participants once depended to Alcohol in their life are interviewed, and analyzed it by using Phenomenological Case method. The typical theme of three participants' lived experience turned out to be 『drawing a line between I and other』, 『maintaining a alcohol-longing myself』. Three participants tried to refrain from those people are not helpful to maintain 'stop drinking'. Otherwise, tried to put Other into the their daily life. Besides Three participants are conscious of a alcohol-longing myself that might be a cause of recurrence. And they tried to keep calm in their everyday in order not to be a alcoholic once again.

Based on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Other is useful to understand Alcoholic' awareness

intention that give to the Alcoholic-related social worker a serious implications ontologically and ethically.

Subject: Social Welfare

Key Words: alcoholic poisoning, stop drinking, recovery,
Other,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